

##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우울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Locus of Control, Stress Coping Behaviors, and Depression in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Children

한지현(Ji Hyoen Han)<sup>1)</sup>

이진숙(Jin Suk Lee)<sup>2)</sup>

### ABSTRACT

Subjects were 134 institutionalized children (86 boys, 48 girls) and 218 non-institutionalized children (115 boys, 103 girls). Findings were that (1) institutionalized children showed lower *internal* locus of control than non-institutionalized children. (2)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internal* locus of control showed active coping behavior. Non-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internal* locus of control showed active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 and non-institutional children with *external* locus of control showed aggressive coping behavior. (3) Regression analysis models showed that institutionalized girls were more depressed than boys; depressed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oriented to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assive coping behavior. Depressed non-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oriented to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assive, evasive coping behavior and showed lower active and social support seeking behavior.

**Key Words** :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스트레스대처행동(stress coping behaviors), 우울(depression), 시설아동 (institutionalized children).

### I. 서 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와

해로 인해 아동이 그들의 친부모로부터 헤어져 다른 성인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는 가족해체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요보호

<sup>1)</sup> 전북대학교 아동·주거학전공 시간강사

<sup>2)</sup>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전공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n Suk Lee, Dept. of Child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 664-14, Iga Duckjin-Dong, Duckjin-Gu, Jeonju, Jeonbuk 561-756, Korea  
E-mail : jslee0820@chonbuk.ac.kr

아동의 급증과 더불어 요보호 아동을 대리적으로 양육보호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더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동양육시설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시설환경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 시설보호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부모의 유기로 인한 분노와 불안 또한 대상 상실로 인한 슬픔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 가지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한 역기능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시설보호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는 대부분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 우울, 대인관계 문제의 위험요인이 된다(Leathers, 2000). 시설보호아동의 내재화 문제 중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우울, 불안이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일반가정아동에 비해서 내재화 문제인 우울, 불안, 미성숙, 위축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김기환, 1997; 성미영, 2006; 유미숙, 1980). 특히, 아동기의 우울은 연속적인 장애로서,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적 손상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신체증상 및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의 증상을 나타내고 가출이나 자살, 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 부적응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아동기 우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시설보호 아동의 우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심리내적 자원이 중요하다. 우울은 주로 스트레스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전 생애에 걸쳐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스트레스를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에 따라 개인의 삶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통제소재는 행동의 결과에 따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요인으로 지각하는 내적통제성향과 행운이나 운명, 타인의 압력과 같은 외적요인으로 지각하는 외적통제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개인이 내적 또는 외적 통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적통제소재자들은 내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을 경험할 때에 더욱 우울하고, 긴장,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그리고 전반적인 정서장애 등을 보여 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취약성을 나타낸다(이미진, 2005; 이용남, 1999; 최윤희, 2003)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내외통제소재 외에 개인의 중요한 심리내적 자원 중 하나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다. 스트레스 대처란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스트레스 경험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개인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데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ubow & Tisak, 1989).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변인 중 하나로, 개인이 최근의 단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측정한 연구(Billings & Moos, 1984)에서 그들이 사용한 대처 방법이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능동적이며 문제중심적인 적극적 대처행동은 우울과 부적상관(김인향, 1997; 민하영·유안진, 1998; 박경순, 1999; 박선영, 1993; 이미진, 2005),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우울과

정적상관(민하영·유안진, 1998; 신은영, 1998; 이미진, 2005; 이현정, 1997)을 보여 대처행동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이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아동의 우울에 관련된 변인으로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내외통제소재와 우울의 관계 연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의 관계 연구와 같이 주로 단일변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두 변인들과 우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일반 초등학교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미진, 2005)와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승자, 2000)가 있을 뿐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시설보호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시설보호아동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내외통제소재와 같은 개인내적 인성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개인의 행동을 일관성있게 지배하는 개인의 인성특성과 대처행동간의 유의한 관련성(Bolger, 1990; Suls, David & Harvey, 1996; Watson & Hubbard, 1996; 민하영, 1999 재인용)이 밝혀졌다. 개인내적 인성특성 중 하나인 내외통제소재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성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내외통제소재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아동의 시설보호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아동의 우울과 관련된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1-1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은 시설보호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우울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대처행동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주시와 근교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5곳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아동들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각각 2개의 초등학교 4-6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성별		남	86(64.2%)
		여	48(35.8%)
시설 보호 아동	초등학교	4학년	27(20.1%)
		5학년	20(14.9%)
	학년	6학년	33(24.6%)
		중학교	1학년
		2학년	18(13.4%)
	계		134(100%)
성별		남	115(52.8%)
		여	103(47.2%)
일반 아동	초등학교	4학년	41(18.8%)
		5학년	34(15.6%)
	학년	6학년	39(17.9%)
		중학교	1학년
		2학년	51(23.4%)
	계		218(100%)

학년과 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아동들이다. 시설보호아동은 134명(남아 86명, 여아 48명)이고 일반아동은 218명(115명, 103명)이었으며 이들의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상아동의 연령을 만 9세에서 13세까지로 선정한 이유는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후기아동기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중학교 1-2학년생의 경우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하는 기간이므로 이 시기 아동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다.

## 2. 연구도구

### 1) 내외통제소재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1999)이 제작한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내적통제소재 10문

항과 외적통제소재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외통제소재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내적통제소재와 외적통제소재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적통제소재 문항을 역산 처리하여 내적통제소재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내외통제소재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소재 성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9$ 로 나타났다.

### 2)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민하영(1999)이 수정한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적극적 대처행동 6문항, 소극적 대처행동 6문항, 공격적 대처행동 6문항, 회피적 대처행동 6문항,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하영(1999)은 4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을 평가하였다. 대처행동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2였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8-.76 사이에 있었다.

### 3)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형 소아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Kovacs(1981)의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번안하여 초등학교

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단일차원 척도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의 기분상태를 아동 스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원척도는 각 문항마다 ‘보기’가 문장으로 되어 있고 0, 1, 2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아동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타척도와 의 응답방식의 통일성을 주기 위하여 각 문항을 한 문장으로 하고 응답방식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보고하도록 수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 척도에 대한 예비조사는 2005년 12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각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5곳의 보육원을 방문하여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얻어 아동에게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대상 시설보호아동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곳을 선정하여 각 학급의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일반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t$ -test,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

#### 1)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의 차이

먼저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았다.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이 아동의 시설보호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외통제소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일반아동이 시설보호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t=3.59, p<.001$ ) 일반아동에 비해 시설보호아동의 내외통제소재성향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은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의 차이

	시설보호아동 (n=134)		일반아동 (n=218)		t값
	M(SD)	M(SD)	M(SD)	M(SD)	
내외통제소재	2.88(.34)	3.02(.35)	3.59***		
스트레스 대처행동	적극적	2.50(.58)	2.59(.61)	1.37	
	소극적	2.38(.62)	2.44(.58)	.93	
	공격적	2.31(.66)	2.37(.63)	.75	
	회피적	2.28(.42)	2.33(.56)	.81	
지지추구적	2.37(.65)	2.51(.80)	1.62		
우울	2.16(.47)	2.07(.52)	-1.57		

\*\*\* $p<.001$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의 차이

다음으로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각 집단 별로 성별과 학년에 따라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외통제소재의 경우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는 각 하위영역별로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에게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에 따르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소극적 대처행동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 $t=-2.22, p<.05$ ), 여아가 남아에 비해 소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소극적 대처행동과( $t=-4.06, p<.001$ )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t=-2.56, p<.05$ )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와 같이 소극적 대처행동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도 여아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성별		t값
		남 M(SD)	여 M(SD)	
시설 보호 아동	적극적 대처	2.53(.63)	2.46(.48)	.60
	소극적 대처	2.29(.58)	2.54(.66)	-2.22*
	공격적 대처	2.33(.64)	2.29(.69)	.26
	회피적 대처	2.27(.39)	2.31(.47)	-.48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2.40(.65)	2.32(.66)	.70
일반 아동	적극적 대처	2.61(.62)	2.58(.60)	.38
	소극적 대처	2.30(.57)	2.61(.55)	-4.06***
	공격적 대처	2.41(.62)	2.32(.65)	1.14
	회피적 대처	2.35(.66)	2.31(.43)	.50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2.37(.76)	2.65(.82)	-2.56*

\* $p<.05$  \*\*\* $p<.001$

<표 4> 학년에 따른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차이

		초등학생	중학생	t값
		M(SD)	M(SD)	
시설 보호 아동	적극적 대처	2.39(.57)	2.67(.55)	-2.81**
	소극적 대처	2.34(.64)	2.44(.59)	-.92
	공격적 대처	2.23(.58)	2.45(.75)	-1.90
	회피적 대처	2.24(.44)	2.35(.37)	-1.47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2.25(.62)	2.56(.67)	-2.77**
일반 아동	적극적 대처	2.59(.60)	2.60(.63)	-.18
	소극적 대처	2.44(.53)	2.45(.63)	-.12
	공격적 대처	2.26(.61)	2.48(.63)	-2.57*
	회피적 대처	2.35(.61)	2.31(.51)	.44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2.39(.83)	2.63(.76)	-2.18*

\* $p<.05$  \*\* $p<.01$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적극적 대처행동( $t=-2.81, p<.01$ )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t=-2.77, p<.01$ )에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4-6학년이 비해 중학교 1-2학년이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공격적 대처행동( $t=-2.57, p<.05$ )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t=-2.18, p<.05$ )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공격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우울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에게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표 5>에 따르면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나( $t=-2.55, p<.05$ ) 우울 성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우울은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성별에 따른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우울 차이

	남	여	t값
	M(SD)	M(SD)	
시설보호아동 우울	2.09(.45)	2.30(.49)	-2.55*
일반아동 우울	2.05(.52)	2.10(.52)	-.64

\*p<.05

## 2.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내외통제소재를 각 집단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내적통제소재 집단과 외적통제소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M(평균) + 1/2SD(표준편차) 이상인 경우 내적통제소재 집단으로, M-1/2SD 이하인 경우는 외적통제소재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는 결측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시설보호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6>에서 보듯이 적극적 대처행동 점수가 외적통제소재 집단에 비해서 내적통제소재 집단

<표 6> 시설보호아동의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내적통제 소재집단 (n=43)	외적통제 소재집단 (n=49)	t값
	M(SD)	M(SD)	
적극적 대처	2.77(.52)	2.28(.57)	4.21***
소극적 대처	2.35(.60)	2.48(.62)	-1.02
공격적 대처	2.33(.66)	2.41(.65)	-.54
회피적 대처	2.25(.38)	2.33(.43)	-.93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2.46(.75)	2.31(.62)	1.04

\*\*\*p<.001

<표 7>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내적통제 소재집단 (n=72)	외적통제 소재집단 (n=58)	t값
	M(SD)	M(SD)	
적극적 대처	2.83(.69)	2.37(.57)	3.98***
소극적 대처	2.36(.64)	2.53(.57)	-1.56
공격적 대처	2.27(.74)	2.51(.50)	-2.11*
회피적 대처	2.29(.73)	2.37(.50)	-.72
사회지지추구적 대처	2.62(.87)	2.34(.67)	2.01*

\*p<.05 \*\*\*p<.001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t=4.21, p<.001$ ) 내적통제소재 집단이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내외통제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극적 대처행동( $t=3.98, p<.001$ )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t=2.01, p<.05$ )에서는 내적통제소재 집단이 더 높았으며, 공격적 대처행동( $t=-2.11, p<.05$ )은 외적통제소재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시설아동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적극적 대처행동은 일반아동과 시설아동의 모두에게서 같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일반아동의 경우 내적 통제소재 집단이 외적통제소재 집단에 비해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사용하고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적게 보임을 알 수 있다.

## 3. 우울에 대한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우울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

<표 8> 시설보호아동의 성별,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우울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성 별	-.21	-2.55*	-.20	-2.72**	-.11	-1.62
내외통제소재			-.43	-5.66***	-.31	-4.20***
대처행동	적극적				-.11	-1.40
	소극적				.44	5.55***
	공격적				.07	1.03
	회피적				.08	1.19
	사회지지추구적				-.09	-1.27
전체 $R^2$	.040		.235		.432	
$R^2$ 변화량			.195		.197	
$F$		6.52*		20.08***		13.67***

\* $p<.05$  \*\* $p<.01$  \*\*\* $p<.001$  성별은 가변수 처리함(남=1, 여=0).

아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투입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 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r=.15$ 에서  $.48$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공차한계가  $.60$ 에서  $.84$ 까지 범위를 이루고 VIF가 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1단계에서는 성별을, 2단계에서는 내외통제소재를,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다. 먼저 시설보호아동의 우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보호 아동의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아동의 성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종속변인을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 ,  $p<.05$ ). 2단계로 투입된 내외통제소재도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으며( $\beta=-.43$ ,  $p<.001$ ) 추가로 종속

변인을 19.5% 설명하였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소극적 대처행동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으며( $\beta=.44$ ,  $p<.001$ ) 아동의 우울을 19.7% 설명하였다. 즉 성별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에, 내외통제성향이 낮을수록, 또한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아동의 우울에 대한 아동의 성별,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9>에 따르면 성별은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으며, 2단계에서 투입된 내외통제소재가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 $\beta=-.48$ ,  $p<.001$ ) 종속변인을 23.5%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제외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모든 하위 영역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이 높을수록( $\beta=.41$ ,  $p<.001$ ;  $\beta=.15$ ,  $p<.01$ ),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이 낮을수록( $\beta=-.21$ ,  $p<.001$ ;  $\beta=-.12$ ,  $p<.05$ )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종속변인에 대하여 30.1%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일반아동의 성별,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우울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성 별	-.04	-.64	-.08	-1.40	.01	.24
내외통제소재			-.48	-8.12***	-.31	-6.07***
대처행동	적극적				-.21	-3.71***
	소극적				.41	7.70***
	공격적				.07	1.44
	회피적				.15	3.00**
	사회지지추구적				-.12	-2.25*
전체 $R^2$	.002		.237		.538	
$R^2$ 변화량			.235		.301	
$F$	.41		33.24***		34.73***	

\* $p<.05$  \*\* $p<.01$  \*\*\* $p<.001$  성별은 가변수 처리함(남=1, 여=0).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시설보호아동과 비교해볼 때 소극적 대처행동만이 유일한 설명 변수로 나타난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일반아동이 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우울과 관련된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를 통해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이 시설보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내외통제소재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시설보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내외통제소재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통제성향은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Edelstein, Grundmann, & Mies, 2000). 이처럼 생애 과정을 통한 경험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일반아동과 다른 생애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시설보호 아동의 내외통제성향이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내외통제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반응함으로써 생활 전반에서의 현재 및 미래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백양희·최외선, 1997; Hentschel, Sumbadze, & Shubaldze, 2000), 이러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시설보호아동에게 내외통제성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보육원 운영자와 교사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내외통제소재는 차이가 없었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두 집단에서 성별과 학년

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소극적 대처행동은 시설 보호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차는 선행연구결과(박진아, 2001; 송달호, 2002; 이진숙·한지현, 2006; Endler & Parker, 1990; Windle & Windle,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아에게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역할관념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은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서적 위안을 받으려는 도구적 사회지지추구와 정서적 사회지지추구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더 예민한 특성을 가진 여아에게(Brody, 1995) 높은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년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더 많이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년에 높아져 인지적 발달에 따라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동 전략을 더 많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동의 우울은 시설보호아동에게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더 우울 성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에 있어서 나타난 성차는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왔다(이태현, 2004; 정애현, 2001).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에 더 취약한 이유로는 선천적, 환경적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남아에 비해 정서적 자극에 민감한 특성 등이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여아에게 그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표출하고 적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보호를 받는 여아의 경우 표면적인 외현적 행동문제가 없더라도 내면적 행동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아의 우울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둘째, 내외통제소재 점수에 따른 집단 구분을 한 뒤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는데,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내적통제소재 집단이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아동의 경우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서는 내외통제소재 집단이 더 높았으며, 공격적 대처행동은 외적통제소재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내적통제소재자가 외적통제소재자에 비해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중심 대처행동 노력이 높으며, 외적통제소재자는 내적통제소재자에 비해 정서를 억제하는 정서 중심의 대처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정서를 표출을 하는 공격적 대처행동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민하영, 1999; 송금희·김효심, 1993;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Parkes, 1984; Terry, 1994)와 일치하는 것이다. 적극적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걸쳐 외적통제소재 아동보다 내적통제소재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성취수행의 동기인 통제감에 있어 내적통제소재 아동이 외적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통제감을 지니는 내적통제소재 아동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높은 성취동기에 의해 직접적인 문제해결 노력인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격적 대처행동이 내적통제소재 아동보다 외적통제소

재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 것은 외적통제소재 아동이 내적통제소재 아동에 비해 성취수행의 동기인 통제감이 일반적으로 낮고 행동결과의 원인을 외부로 귀인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을 지니는 외적 통제소재 아동은 문제유발의 책임을 상대방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우울에 대한 아동의 성별, 내외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할 수 있었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내적통제성향이 낮을수록, 또한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의 경우 내적통제성향이 낮을수록, 소극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 우울에 있어서 성별이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은 앞서 제시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여아의 우울성향을 발견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내외통제소재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우울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임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적통제소재자들이 내적통제소재자들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을 경험할 때 더 우울하고 심리적인 문제에 더욱 취약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이미진, 2005; 이용남, 1999; 최윤희, 2003)과 일치한다. 즉 우울한 사람일수록 내적통제성향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내적통제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는 힘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통제할 수 없

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우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의 완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적통제소재성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통제 프로그램이나 환경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소극적 대처행동만이 유일한 설명변수로 나타난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일반아동이 더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우울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대처행동을 포함한 정서중심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이 우울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여러 선행연구(이현정, 1997; Compas, Howell, & Phares, 1989; Windle & Windle, 1996; 조하나, 2007 재인용)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능동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적극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으며(김인향, 1997; 박경순, 1999, 박선영, 1993; 박정민, 2007; 이미진, 2005), 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으며(신은영, 1998),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할수록 아동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고 비행행동도 감소했다는 연구(Windle & Windle, 1996)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경우 소극적 대처행동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시설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히 소극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대해 기적이나 신비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인 대처행동을 의미하므로 문제 해결에 기능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직접적이며 인지적이고 행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대처행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지지나 도움을 받는 사회적 지지적 대처행동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아동을 위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전략을 제공하고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아동의 자기보고식 방법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처럼 아동보고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의 특성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자와의 면담, 보육사나 부모평가와 같은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응답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우울과 관련된 변인으로 내외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는데 각 변인에서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후속연구에서는 단순히 차이만 보고하기보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탐색을 통해 시설보호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시설보호여부에 따른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각 집단내에서 이들 변인간에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함으로써 시설보호아동의 심리정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기환(1997). 시설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아동 복지시설연합 제21회 아동복지세미나 자료집.
- 김인향(199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승자(2000). 이혼가정 아동의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불안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유안진(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경순(1999). 아동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양식 및 우울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평가와 대처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민(2007). 아동의 완벽주의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 성미영(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송금희·김효심(1993).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욕구좌절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67-79.
- 송달호(2002).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실패내성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1998). 한국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1980). 보호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진(200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남(1999). 초등학교 교사의 우울수준에 따른 내외 통제 및 우울대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한지현 (2006).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951-959.
- 이태현(2004). 초등학교의 우울성향, 비합리적 신념,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애현(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 방식 및 우울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조하나(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77-891.
- Bolger, N. (1990). Coping as a personality process : A prospective stud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25-537.
- Brody, L. R. (1995) Gender difference in emotional development :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Compas, B. E., Howell, D. C., & Phares, V. (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adolescence :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6), 732-740.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delstein, W., Grundmann, M., & Mies, A. (2000) The develop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beliefs in developmentally relevant contexts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lifeworlds. In W. J. Perrig & A. Grob(Eds.), *Control of human behavior, mental process, and consciousness*.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Endler, N. S.,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Hentschel, U., Sumbadze, N., & Shubaldze, S. (2000) The effect of the I-E locus of control conviction on remembering and planning one's life : Individual differences in life event reports of Georgian respond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28, 443-454.
- Kovacs (1981).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6-998.
-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Parkes, K. R. (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655-668.
- Suls, J., David, J. P., & Harvey, J. H. (1996). Personality and coping : Three generations of research. *J. of Personality*, 64(4), 711-735.
- Terry, D. J. (1994) Determinants of coping : The role of stable and situation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895-910.
- Watson, D., & Hubbard, B. (1996). Adaptational style and dispositional structure : Coping in the context of the five-factor model. *J. of Personality*, 64(4), 737-774.
- Windle, M., & Windle, R. C. (1996) Coping strategies, drinking motives,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middle adolescents :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with academic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51-560.

---

2007년 8월 30일 투고 : 2007년 11월 9일 채택